

국경 없는 말씀들: 새 천년기의 성서 번역

빌 미첼*
안용성 번역**

1. 성서 번역의 역사

성서 번역의 역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을 그 시작으로 본다(느헤미야 8장). 그는 히브리어를 읽었다. 그러나 그의 청중은 오랜 포로 생활의 결과로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아람어 번역이 필요했다. 그 후 몇 세기 동안 유대교 집회들에서는 성경을 소리 내어 읽은 후 그것을 메투르게만(해석자)이 아람어로 번역해 주는 관습(타르굼)이 발전했다. 다른 사람들은 기원전 2세기 이집트에서 히브리어 성서를 희랍어로 번역한 것, 즉 칠십인역(셍투아진트 또는 LXX)이 성서 번역의 시초라고 본다.

스물리는 성서 번역사를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시대로 나눈다.

신앙을 확산시킨 시대	200 B.C. -	칠십인역 이후
유럽 언어들의 시대	405 -	405년 불가타 완성
인쇄 시대	1450 -	1456년 구텐베르크의 불가타
성서공회 시대	1804 -	1804년 BFBS 창립
전문화된 번역의 시대	1943 -	유진 나이다(Eugene Nida, ABS); 카메론 타운센드(W. Cameron Townsend, WBT-SIL); 47년 나이다의 성서 번역
신 구교 공동번역의 시대	1965 -	1962-4 바티칸제2공회 <i>Dei Verbum</i>
비선교사 번역의 시대	1970 -	

1.1. 성서의 언어들

주후 첫 1500년 동안 느린 속도로 진전되어오던 성서 번역에 눈에 띄는 발전

*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아메리카 지역 번역 책임자

** 장로회 신학대학교 초빙(강의전담) 교수, 신약학

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확장 (대개 예전과 예배서 낭독을 위한 번역) 그리고 개신교의 종교개혁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성서 번역의 확장에 미친 영향은 흔히 얘기되는 것보다는 미미하다.

연도	
1499	35개 언어
1799	59개 언어 추가
1899	446개 언어 추가
1949	667개 언어 추가
	합계: 1,207개 언어 ¹⁾

위의 표가 보여주듯이 성서 번역에 획기적 발전이 이루어진 것은 1800년 이후인데, 이는 성서공회의 발전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영국성서공회(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가 1804년에 설립되었다.

1.2. 세계의 성서들 - 2005년 12월

세계성서공회연합회(United Bible Societies)의 연례 통계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성경전서	426개 언어 ²⁾
신약성서	1,115개 언어
부분적 번역	862개 언어
계	2,403개 언어

인구로 따져 볼 때, 일부 번역을 포함하여, 성서는 전 세계 인구의 95%가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4천 개 가량의 언어를 사용하는 3억 명 가량의 사람들이 아직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서가 95%의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해도, 그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서를 받았거나 들었거나 읽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20억 명 이상, 즉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문맹이다.

2. 성서 번역의 몇 가지 특징들: 1950-2005

1) Smalley, 1991, 33-38에 기초한 통계.

2) 이 성서들 중 122개는 외경을 포함한다.

성서 번역은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문서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성서 번역의 폭발적 증가가 일어났다.

1950-2005 1,196개의 새로운 언어로 번역이 이루어짐

2.1. 유진 나이다(Eugene Nida)와 케넛 파이크(Kenneth Pike)

이 기간의 역사 기록에서 번역 이론의 두 개척자들을 빼놓을 수는 없다: 유진 나이다와 케넛 파이크. 제2차 세계대전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현대 언어학과 인류학의 도구들을 성서 번역에 적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번역 방법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와 SIL-WBT(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 – Wycliffe Bible Translators)의 이론가들이 되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번역 이론은 아직 유아기에 있었고, 성서 번역은 그 분야의 최첨단에 있었다. 의미에 기반을 둔 번역이 강조되었고, 이 접근 방법은 ‘역동적 동등성’(dynamic equivalence)으로, 그리고 후에는 ‘기능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으로 알려졌다. 주요 언어들로 번역된 이 이론의 첫 번째 성과물들 중에는 영어로 된 *Good News Bible for Modern Man* (1996), 스페인어로 된 *Dios Ilega al hombre* (1966), 포르투갈어로 된 *A Biblia Sagrada: O Novo Testamento na Linguagem de Hoje* (1973) 등이 있다.

2.2. 전후 선교사 세대

제2차 대전 직후에 특히 북미주에서 복음주의적 선교 운동이 붓물처럼 일어났고,³⁾ 천주교에서도 새로운 선교적 추진이 이루어졌다. 남북미 대륙에서, 상당히 많은 수로 일어난 이 새로운 선교사들은 토착민들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서 번역은 그들은 핵심적인 관심사였다 – 파이크의 언어 분석 도구들 그리고 나이다의 번역 이론과 실천은 이 분야에서 발전의 열쇠가 되었다.

2.3. 선교사 번역자들로부터 모국어 번역자들로의 전이

3) 1956년 에콰도르 정글에서 미국 선교사 다섯 명이 죽은 일이 널리 보도되었고, 이는 1960년대 남미 원주민들을 향한 미국 선교사들의 큰 증가로 이어졌다. Elisabeth Elliot, *Through Gates of Splendor*.

1970년대 중반 이후 교회의 성장과 훈련 기관의 증가 그리고 선교학적 강조의 변화에 힘입어, 토착 언어 번역의 주체가 외국인들로부터 모국어 사용자로 바뀌어왔다. 그리하여 성서 번역은 제3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 선교사에 의한 번역: 1950년 이전
2. 모국어를 사용하는 정보 제공자들(informants)의 도움을 받은 선교사 번역: 1950-1975
3. 모국어 사용자들에 의한 번역: 1975년 이후

2.4. 신 구교 공동 작업의 발전

제2 바티칸 공의회에 따른 1965년 *Dei Verbum* 문서의 반포는 천주교에서 토착 언어 사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성서 번역에 힘을 쏟게 되었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El Libro de Nueva Alianza* (1968) 그리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아르만도 레보라띠(Fr Armando Levoratti)와 알프레도 트루소(Fr Alfredo Trusso)가 번역한 신약성서이다. 1969년에는 「신 구교 성서 번역 협력을 위한 안내서」가 세계 성서공회연합회와 천주교 일치촉진평의회(Secretariat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에 의해 발간되었다.

3. 성서 번역: 맥락의 변화

21세기 초에는 대규모의 사회변화들이 성서 번역의 과제와 우선 순위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3.1. 세계화

오늘날의 세계화를 이끈 주도적 동력들 중 하나는 지난 20년간 일어난 통신 혁명, 특히 전 세계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꾼 인터넷의 출현이다. 번역 작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은, 세계적 수준의 지배 언어(예. 영어⁴⁾)의 출현과 지역적 수준의 종족성 정체성의 추구이다. 많은 소수민족 언어들이 이러한 세계적 위세에 직면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다.

4) 현재 15억의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그 중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들은 4억 6천만 명뿐이다.

문화적 세계화의 위세는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에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세계화된 텔레비전 프로들은 방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문화 아이콘들과 이미지들과 스타일들을 생산한다.

3.2. 언어의 변화

언어는 살아 있는 실체이다. 모든 언어들은 시간에 따라 소리와 구문과 의미 등을 변화시켜 나간다. 이것만으로도 각 세대를 위한 개정 번역의 필요성에 도달하게 된다. 언어 사용의 변화는 번역자들에 의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성적 정치적으로 차별 없는 표현이 사용되어야 한다.

주요 언어들에서 가장 역동적인 분야는 청소년 문화가 되겠는데, 이는 어쩌면 사회 집단들을 분류하여 특정 집단을 위한 번역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⁵⁾

언어 사용의 큰 변화는 젊은이들의 대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흔한 예를 젊은이들이 애용하는 인터넷 채팅과 휴대용 전화기의 문자 메시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빠르고 유동적이며 역동적인 언어이다. 속도가 중요하며, 소리 표기가 핵심 역할을 한다. 구문과 문법과 철자법은 유배지로 추방되었다. 많은 경우 채팅의 ‘사전’에는 어휘 수가 고작해야 2백 개 정도이다. 채팅과 문자 메시지의 속도는 거의 동시적인 의사소통과 직접 대화의 모방을 가능하게 한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러한 방식의 기술 사용을 증대시킨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여 귀속되고 자신의 코드에 맞는 정체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는 기존 행위 방식으로부터의 자유를 허용하고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속도와 기계음은 매력적이다. 게다가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감당할 만한 가격으로 제공된다.⁶⁾

마찬가지로, 매체와 ‘이미지 문화’의 역할은 성서 번역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된다. 이는 또한 상징과 아이콘에 대한 연구로 그리고 초매체화 (transmediatization) 연구에 기호학의 사용으로 나아가게 된다.

5) 예를 들어, UBS의 새로운 스페인어 번역 성경 *Traducción en Lenguaje Actual* (2004)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어 주석 성경 *La Bible Expliquée* (2004)는 ‘다른 세계와 다른 시대로부터 온’ 텍스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는 성서에 대한 선지식이 없으나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 이 번역은 의도적으로 ‘종교적 어휘 사용을 피했으며’ ‘일상적 어휘들에 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6) 호주성서공회는 이러한 청중을 위한 텍스트를 개발했다(www.biblesociety.com.au/smsbible/).

3.3. 언어의 실종과 사멸(Mitchell, 1977)

언어학의 큰 관심 하나는 언어의 소실과 사멸이다. 다르시 리베이로(Darcy Ribeiro)에 의하면, 20세기 브라질에서는 90개의 토착(언어) 그룹들이 소멸되었다. 어떤 언어학자들은 오늘날 사용되는 6,700개 언어 중 절반은 어른들에 의해서만 사용되고 자녀들에게 더 이상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한다. 세계 언어 중 52%가 1만 명 이하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을 번역하고 어떤 형식과 매체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각각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요청된다.

언어들이 사멸하는 경우에 직면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문화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점이다. 언어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언어들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떤 성경을 필요로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한 가지로 대답할 수는 없다.

3.4. 도시화

세계 인구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더 그렇다. 1950년에는 세계 인구의 30%만이 도시에 살았다. 2030년에는 60%가 도시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도시화는 많은 경우 큰 도시들에서 일어난다. 거대 도시(백만 명 이상), 대 도시(5백만 - 천만), 중간 규모 도시(백만 - 5백만)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그렇다. 2015년에 거대 도시 21개 중 17개는 개발도상국에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와 이민은 이러한 성장의 주원인이다. 도시 문화로의 동화 과정이 언어 다양성의 손실로 이어지나, 다른 과정들도 함께 일어난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인구 이동의 특징 하나는 새로운 언어의 탄생이다. 이중 언어(bilingualism)와 양층 언어(diglossia)는 언어접촉을 통해 산출된다. 혼종 언어가 언어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의 큰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성장은 단지 이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시는 새로운 세대, 즉 정착한 이주민들의 자녀들의 출생지이기도 하다. 많은 경우 도시 인구의 자연 성장 비율은 이민의 비율보다 높다. 이 자녀들이 반드시 부모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3.5. 인구 변화

세계 인구가 십억이 되는 데는 1800년까지의 인류 역사 전체가 소요되었다. 그 인구는 겨우 130년 만에 두 배로 늘었으며, 그 후 70년이 지난 2000년도에는 6십억으로 치솟았다. 현재 세계 인구는 해마다 8천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인구 증가가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증가는 충격적으로 양분되어 있는데, 세계 인구 증가의 98%가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덜 낡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인구가 줄고 있는 형편이다. 서구의 노년화가 비서구 세계의 젊음과 대조된다. 2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멕시코시티에서 평균 연령은 15.5세이다.

3.6. 디아스포라

많은 토착민들이 인구 이동의 대열에 들어서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모습이 다. 추방자들, 이주자들, 난민들, 망명 요청자들, 이주 노동자들, 정부 관료들, 여행자들 등, 서로 다른 인구의 ‘인종경관’(ethnoscape)은 세계의 거대도시들에서 가장 극적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서는 집단들을 분리시키는 물리적 거리가 무의미해지고 하부문화들이 지배문화들과 직접 대면한다.

이민 인구가 많은 곳에는 새로운 ‘인종경관’이 나타나고 다언어적 ‘초지역적’ 공동체들이 발전한다. 새로운 사회 정체성이 수립된다.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토론토에서는 매일 131개의 언어가 사용된다. 나는 캐나다 정유 가스 산업의 중심지인 인구 백만의 캘거리에 살고 있다. 2005년 한 해에 132개 국가에서 78개 언어를 사용하는 9천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그 도시에 이주해 왔다.

3.7. 혼종과 재사용 양피지

하부문화들은 지배문화에 의해 삼켜져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양자는 종종 상호 작용한다. 혼종 문화들이 출현하는데 이는 약점보다 장점이 될 수 있다. 하부문화의 특징적인 면들이 새로 일어나는 형태들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의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연구에서 이 문제에 관하여 사용되는 지배적 은유는 재사용 양피지이다. 이전에 기록된 텍스트 층들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요소들은 문화 양피지에 새로운 텍스트 층이 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4. 성서 번역: 이론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번역은 진공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회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 고대와 현대인의 의사소통에 관해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는 - 성서학과 언어학과 사회과학의 발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4.1. 번역 과학의 폭발적 발전(Mojola, 2003)

성서를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번역 이론은 50년 전 이 분야의 선구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지난 25년간 세계가 더욱 작아져 가면서 특히 유럽에서 - 꼭 유럽에서만은 아니나 - 번역 연구가 대규모로 성장했다.

4.2. 사회과학의 발전

번역 연구의 성장은 커뮤니케이션 연구, 인지과학, 인류학, 언어학 등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학문들에 의해 생성된 인간 상호작용의 새로운 이해는 성서 번역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해 준다.

4.3. 성서학의 발전(Ogden, 2003)

성서학 분야에 다양한 이론들이 나타났는데 이 모두가 번역에도 관련된다. 사회과학의 발전과 함께 성서 주석과 다른 학문들의 연계가 심화되었다. 문학으로서의 성서에 대한 이해는 특히 중요하다.

발전된 분야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 | |
|----------------|-----------------------|
| - 본문 (text) | 예) 칠십인역 연구, 주석, 정경 연구 |
| - 구성 (texture) | 예) 사회 수사학 연구 |
| - 맥락 (context) | 예) 사회문화적 배경 |
| - 독자 (pretext) | 예) 이데올로기, 의심의 해석학 |

4.4. 번역과 테크놀로지

세계화된 우리의 세상에서 번역의 필요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왔으며,⁷⁾

7) 경제 영역에서 번역은 GILT의 한 부분으로 알려져 왔다: Globalisation, Internationalisation, Localisation and Translation.

컴퓨터의 힘이 번역 산업에 이용되어 온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대규모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전 자동 번역 또는 기계적 번역의 목표는 여전히 멀리 있다. 그러나 번역 기억 프로그램(translation memory tools)⁸⁾, 코퍼스 언어학⁹⁾(텍스트의 유형과 장르 포함), 전자 말뭉치들(electronic corpora)과 ‘용어 은행’(term banks), 구문 구조에 기초한 언어 내적 번역 등 중대한 발전과 실제적 적용이 이루어져 왔다.

기술적 설명서들과 특수 분야들(예. 기상예보¹⁰⁾)이 그러한 연구 방법들을 차용한다. 성서 번역 분야에서도 상업적 영역에서처럼 번역자들을 돕기 위한 도구들이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어형과 구문 구조의 복잡성, 화용론의 중요성, (많은 운문을 포함하는) 문학 장르들, 성서가 번역되어야 할 언어들의 거대한 다양성 등을 고려할 때, 그 막대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기계의 사용은 인간 번역자들을 돕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컴퓨터는 이제 성서 번역 사업에 일상적으로 이용된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Paratext* 같은 프로그램은 번역자들의 본문 검색과 설명서/주석 참조, 본문 분석, 자료 처리, 주석과 색인 작업 등을 도와준다. 이로 인해 사본의 준비와 출판 과정의 효율성과 질이 증대되었다. 매체 기술의 발전은 번역된 본문의 전달을 위해 다양한 비인쇄 매체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5. 새 천년기로

5.1. 보편적 교회

“지금까지 언제나 원칙적으로 보편적이었던’ 그리스도교가 ‘최근의 역사에

8) [역주] 번역 기억 프로그램(translation memory tools): 번역자가 문장이나 어구들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장이 다시 나올 때 앞의 번역을 제시해 주는 프로그램. 한편으로 입력을 간편하게 하고, 다른 한 편으로 번역의 일관성을 기할 수 있게 한다.

9) [역주] 코퍼스 언어학(corpus linguistics): 코퍼스(말뭉치)를 구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언어에 관한 이론 연구와 응용 연구를 하는 학문 분야이다. 여기서 코퍼스란 텍스트, 즉 산출된 말 혹은 글의 집합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코퍼스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 텍스트를 모아놓은 것을 말하지만(예를 들어,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를 묶어 놓은 성경도 하나의 코퍼스이다), 현대의 코퍼스는 근대 소설 연구 혹은 현대 국어 일반의 연구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균형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텍스트들을 모아서 컴퓨터에 전자(비트) 형태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코퍼스 언어학은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이다. ‘문치언어학’이라고도 부르며, 국어정보학은 국어와 관련된 코퍼스 언어학이다. (강범모/고려대 교수, 언어학)

10) 예. www.msc-smc.ec.gc.ca/contents_e.html

들어서 비로소 실제로 보편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세계 종교들 가운데 독특한 현상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신앙 그 자체에서도 새로운 현상이다”(Kwame Bediako).

최근 몇 십 년 사이 그리스도교회의 무게 중심이 북아메리카와 유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졌다 - 새로운 '중심 지역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형성되었다. 20세기 선교 운동에서 번역은 교회에 앞서 왔다. 그런데 이제 그 순서가 뒤바뀔 것인가? 이제 교회 외곽 단체들이 아니라 교회들이 번역을 증진시킬 것인가? 아니면 교회가 주도하는 의미 있는 동반 관계가 형성될 것인가?

선교의 모습이 바뀌어, 이제는 모든 대륙으로부터 모든 대륙으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50년 전의 농어촌 중심 선교가 이제는 도시에 대한 관심으로 이동했다. 국외 이주자들(expatriates)의 역할이 재규정되고 재형성되어 왔으며 선교단체들도 깊은 변화를 겪어 왔다. 남북미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는 SIL/WBT의 변화가 그 한 예이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성서를 번역해오다가 이제 다른 대륙 선교를 위해 성서 번역을 촉진하고 또 라틴 아메리카인들을 모집하고 훈련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고 있다.

5.2. 번역의 우선 과제

세계성서공회연합회와 SIL/WBT, FBA (Forum of Bible Agencies) 등에 의해 필요를 분석하고 우선 순서를 배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 하나는 이것이다. 번역은 모국어 사용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Ph. D. 수준까지의 번역자 양성 과정들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서 개발되고 있다.

갈수록 도시화되고 세계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번역의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 주요 언어들?
- 소수 언어들?
- 도시? 농어촌?
- 구어로 번역?
- 혼종 언어들?
-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언어?
- 매체 언어들?

5.3. 번역의 유형들

번역의 성격과 형식과 매체를 결정하기 위해 - 예를 들어, 문자적, 역동적, 문어적, 예전적 - 의도하는 청중/대중이 주의 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2001년에 간행된 예전 번역에 관한 천주교 문서 *Liturgiam Authenticam*은 성서와 예전 번역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그러나 표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세우려는 가운데 이 지침은 언어들의 다양한 층들과 그 층들이 서로 만나 변화를 계속하는 점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어 문서들을 다루고 있는 천주교의 Vox Clara 위원회는 '*Liturgiam Authenticam*의 정신과 특정 조항들에 일치하는 스타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티칸의 관리들은 최근 미국 천주교 주교단(U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에게 그들의 새로운 예전 번역이 *Liturgiam Authenticam*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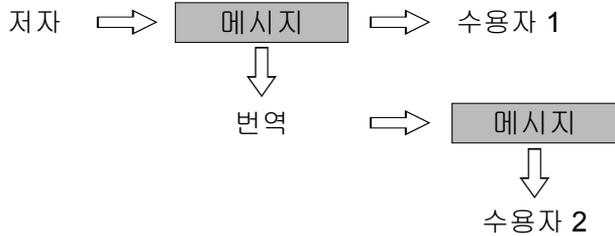
5.4. 번역 이론과 실천

오늘날 성서 번역 이론과 실천은 전이 과정에 있다. 이에 관련된 두 큰 기관들(UBS와 SIL)이 위에 언급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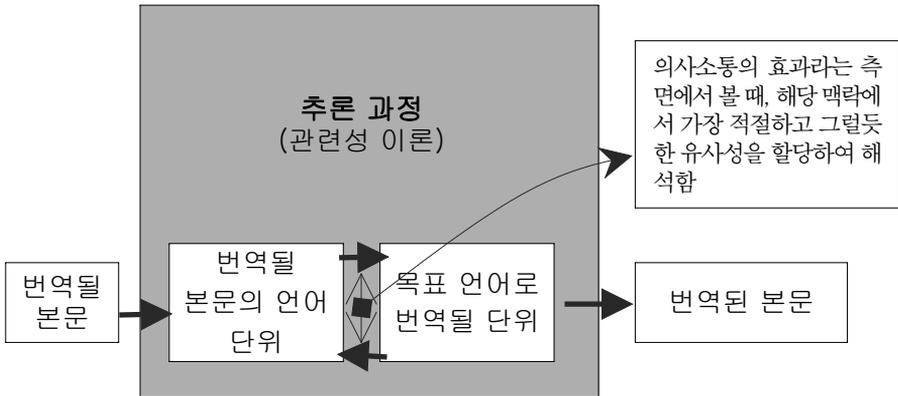
(1) 구 번역 모델

새로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충실성'(faithfulness)과 '동등성'(equivalence)의 개념들로부터 '유사성'(similarity)과 '차이'(difference)의 개념들로 전이되고 있다(Arduini). SIL의 학자들은 그들의 접근 방법의 주요 구성 요소로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Gutt, Sim).

번역의 실제에서 동등성이라는 아이디어는 본질적으로 텍스트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번역에 대한 인지학적-언어학적 접근은 그 초점을 텍스트로부터 마음의 작용(mental process)으로 옮겼다. 여기서 번역이란 사람들이 서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 과정에 관련된 넓은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의 일부로 간주된다. 관련성 이론은 '우리 마음의 정보 처리 능력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지를 설명'해 내려 시도한다. 여기서 열쇠는 사람들이 특정 인지 환경과 (이해되고 그에 반응하는) 암시된 의미들 속에서 무엇을 추론하느냐이다.



(2) 관련성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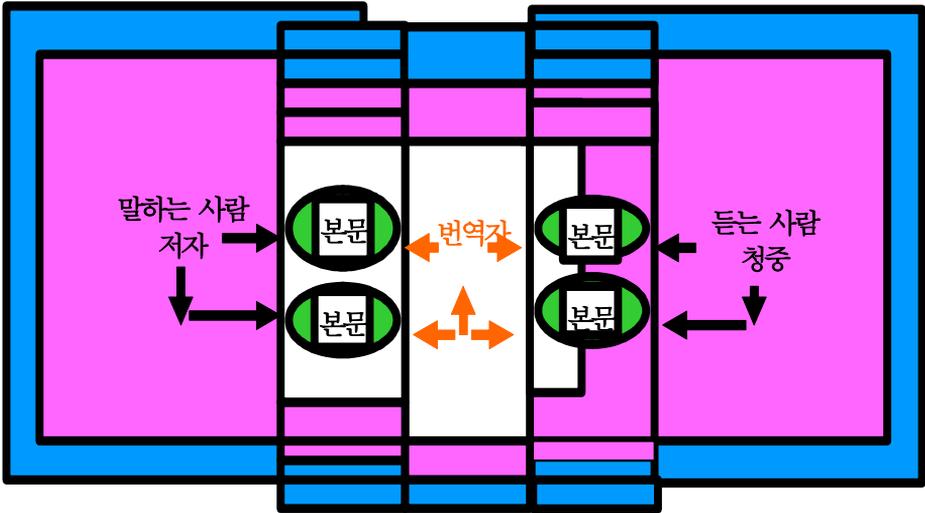


(3) 준거 기준 모델(Frame of reference model)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연구자들은 SIL의 연구를 보충하는 개념들을 발전시켰는데, 여기서 고려되는 것은 개념적 준거 기준, 상황과 본문의 맥락들, 문학적 언어학적 구성 요소들이다.

‘기준’ 또는 ‘틀’(frame)이라는 용어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의 의사소통과 같이 유동적인 대상을 담아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직된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용어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이나 배경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틀 또는 틀 짓기라는 개념이, 정적이기보다는, 의사소통의 기저를 이루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협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준거 기준 모델의 대변자인 데이비드 케이탄(David Katan)은 이 개념이 나이다의 역동적

동등성을 넘어 문화적 중재자로서의 번역자 상으로 나아가도록 한다고 제안한다. “중재자는 번역될 문화의 해석 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번역의 목표가 되는 독자의 마음속에서 평가될 일련의 유사한 해석의 준거들을 창조해 낼 본문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Phillip Noss)

6. 국경 없는 말씀들

“현대 선교 운동에서 성서 번역은 ... 그리스도교를 전 세계 인간 가족의 것으로 변화시켰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성서 번역은 신앙을 번역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다문화적인 것으로 보는 혁명적인 개념을 대변한다. 그리스도교가 번역되고 번역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을 문화 세계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성서가 그려주는 그림을 볼 때, 바벨탑 이전에는 (창세기 11장) 의사소통이 손쉬웠으나 이것은 혼란으로 변화되었다.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이 방향이 뒤바뀌었다. 오순절은 토착 언어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매개가 될 수 있게 했다.

성서 번역의 신학이 있다. 그것은 성육신의 ‘연장’이다 -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의 최초의 번역 행위는 그렇게 새로운 번역의 끊임없는 행렬을 일으켰다. 그리스도교의 다양성은 성육신의 필연적인 산물이

다.”

사람들과 문화들에게 성서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다. 성서가 컨텍스트가 된다. 독자(또는 청자)는 성서의 의미와 경험의 세계, 하나님의 하나 된 다문화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 거기 참여한다. 번역된 성서는 그 경험의 세계가, 독자 또는 청자의 경험의 문화 세계에 의해 모양 지어져,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도록 보장한다.

새로운 관용어로 옷 입은 성서의 진리는 보편적 교회를 풍성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공동체들과 문화들 속에서 더 깊게 ‘번역’해 내도록 촉진한다. 사람들 사이의 장벽들은 무너져 내린다. 사람들은 외친다.

“...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행 2:11).

<Key words>

성서 번역, 역사, 세계화, 언어 변화, 이론과 실제

<Abstract>

Words without Borders: Bible Translation in the New Millennium

Dr. Bill Mitchell

(United Bible Societies America Area Translation Coordinator)

Bible translation has seen exponential growth in the last fifty years, yet needs to take into account widespread changes taking place in translation studies, biblical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In our globalized world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major population shifts, the media culture and language death and disappearance combine to challenge earlier theory and practice. The shift in the centre of gravity of the church from the 'North' to the 'South' raises questions about priorities in the translation agenda and the viability of the whole enterprise. The paper examines these factors and identifies issues that must be addressed.